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재판은 끝났다: 죄책감의 감옥에서 무죄의 자유로

골로새서 2:13-14

현대인들은 "죄송합니다"를 입버릇처럼 달고 살며, "나는 부족하다", "더 잘 해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일종의 '세속적 죄책감'으로, 우리 마음속 법정에서 스스로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끝없이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자가 사건이 우주적 법정에서 일어난 판결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던 죄의 채무 증서(빚 문서)를 심자가 못 박아 영원히 폐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불(Tetelestai)하셨기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No Condemnation)"고 선언하셨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면의 검사를 하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무죄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소그룹 나눔 질문

1. [내면의 재판] 당신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엄격한 편인가요? 최근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더 완벽했어야 해"라고 자책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 기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2. [복음 적용]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고 판결하셨다"는 사실이 당신의 죄책감(과거의 실수, 후회)을 다루는 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내가 오늘 '하고'해야 할 내 마음속 검사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 교회 소식 ✠

㉠ 예배
나를 살린 그 말씀, 누군가를 살릴 복음
예배를 통해 부여하시는 은혜는 내 안에만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 놀라운 사랑을, 이제는 내 결의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나의 전도 대상자: []

- 사순절 성찬식 : 8일(오늘) 1·2부 예배 시
- 예전예배학 제5강 : 8일(오늘) 오전 10시 10분, 기도실
- 수요성서특강 제2강 : 11일(수) 오후 7시, 본당
- 남선교회 헌신예배 : 15일(주) 오후 1시 30분, 본당
- * 강사 : 오덕호 목사 (말씀의 생명력과 목회자의 덕목)

㉡ 2026년 『성경 통독과 함께하는』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 일시 : 3월 23일(월)~4월 4일(토) 오전 6시 30분
- 주제 : "광야를 지나 심자가 앞으로"

㉢ 원로·은퇴·시무장로 간담회 : 8일(오늘) 오후 1시 30분, 기도실
- 당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와 대화

㉣ 향촌직 피택자교육 : 10일(화) 오후 7시, 회의실

- ㉤ 모임
- "풍성한 삶의 첫걸음" : 오후 1시 30분, 소가재
 - 구역모임 : 8일(오늘) 2부 예배 후, 구역별 지정 장소
 - 각부서 회계담당 모임: 8일(오늘) 오후 1시, 회의실
 - 독거노인반찬배달 : 12일(목) 오전 10시, 천교실
 - 한빛의 날 : 13일(금) 오전 10시 30분, 기도실
 - 중보기도소모임 : 14일(토) 오전 10시 30분, 소가재

㉥ 북촌 65+ 스마트 경로당 현판식 : 12일(목) 오후 1시
- 북촌로 5가길 17-7 (문의 : 박정희 권사)

- ㉦ 식당봉사
- 8일(주) : 김연신 정정아 최문수 / 송홍식 임채호
 - 15일(주) : 고명수 유화명 최예순 / 강성윤 김종훈

<봉헌과 감사의 기도>

(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죄의 구렁텅이를 건너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찢으셨으며,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치셨으니 감사합니다.

(회중)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겸손히 바치는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따르고자하는 우리의 헌신의 표식으로 삼아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파송

<사순절 성만찬>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십자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쓰다"
/ 마태복음 27:45-50; 이사야 53:3-6; 히브리서 4:14-16 >



사순절 셋째주일에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엡 4:32)

(목사)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빈곤한 우리 본성을 풍요로운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키시고, 새로워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65장 다 같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합시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잃은 자를 찾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흠여졌으며,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럽혀졌으면서도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왜소하면서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했고, 정의에 게을렀으며, 주님의 진리에 무심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돌이키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사죄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268장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스가랴 3:1-5(1315) 황승우 안수집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의 말씀> 골로새서 2:13-14(326) 황승우 안수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묵상> “보혈을 지나” 김진성도 오르간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8:3-11(157) 정정아 권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 설 교 > 『재판은 끝났다: 죄책감의 감옥에서 무죄의 자유로』 ..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정정아 권사

찬 송 413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